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이창동 감독 특별전 개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한국영화계의 거장 이창동 감독의 특별전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을 연다.

'영화는 계속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방역과 축제의 공존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국내 영화팬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을 전했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이창동 감독의 특별전,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을 개최한다는 것.

이번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 특별전에서는 20년 넘게 관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유명 작품과 그의 신작 단편 <심장소리>를 전 세계 최초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심장소리>는 4년 만의 신작이자 WHO에서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여기에 더해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신작 다큐멘터리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 또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한다.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의 전체 상영작은 총 8편으로, 이창동 감독의 대표



이창동 감독.

작인 <초록물고기>(1997), <박하사탕>(1999), <오아시스>(2002), <밀양>(2007), <시>(2010), <버닝>(2018)과 단편 <심장소리>(2022), 알랭 마자르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2022)이다.

<초록물고기>, <오아시스> 등의 작품은 이창동 감독이 직접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에 참여해, 오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 4K 버전이 상영될 예정이다. 국내의 많은 이에게 인생 영화로 꼽히는 대작들

과 손꼽아 기다리던 이창동 감독의 신작, 그리고 그의 영화사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영화제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 한국영화를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특별전 기념 단행본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발간 소식을 함께 전했다. 책에는 김영진 평론가가 맡은 이창동 작가론과 함께 6편의 작품론, <씨네 21> 김혜리 기자와 이창동 감독의 인터뷰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전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을 기획한 문석 프로그램머는 "한국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행사로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모더레이터 또한 대단히 특별한 분이 맡아 주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관객들께도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목)부터 5월 7일(토)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양은경 기자

"공예 다양한 이슈 담은 소식지 구독하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 '손으로 공예로' 신규 구독자 모집

전주공예품전시관이 공예 트렌드 매거진 '손으로 공예로'의 신규 구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으로 공예로'는 지난 2019년 9월 발간을 시작으로 이달 말 일곱 번째 소식지 발행을 앞둔 계간지다.

이에 따르면 소식지는 공예의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공예 소재 ▲공예인 ▲공예 공방 ▲공예 기획상품 ▲전문가 칼럼 ▲해외 공예마을 탐방 ▲유네스코 공예 기술 소개 등 9가지 테마로 구성, 대중이 공예문화의 여러 단면을 흥미롭게 접하도록 했다.

특히 공예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제공되는 공예 전문 소식지인 만큼 누구나 구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독비는 무료다.

'손으로 공예로'는 현재까지 공예인 소개 55명, 전문가 원고수록 18건, 공간소개 37곳 등 총 6회에 걸쳐 전국 2천5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배포됐다.

한편, 지난 호 '손으로 공예로'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공예 아카이브'에 등록된 e-book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손으로 공예로' 편집자인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우리 일상 곳곳에는 공예가 자리



하고 있다"며 "소식지를 구독하고,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우리 공예문화와 마주하는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독 신청은 이달 말까지며,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내한공연

우즈베키스탄 국립볼쇼이 오페라·발레극장 초청 '오페라 갈라콘서트' 29일 고창문화의전당서 진행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국립볼쇼이극장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들이 고창군을 찾는다.

고창군은 고창문화의전당 새봄맞이 기획공연

으로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립볼쇼이 오페라·발레극장'을 초청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세계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태철 지휘자와 63인조 오케스트라, 성악가 6명, 무용수 2명 등이 출연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개최한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볼쇼이 오페라·발레극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자부심이자 중앙아시아의 오페라와 발레 문화의 중심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백 회의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가졌다.

이번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운명의 힘', '라 트라비아타', '세비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등 오페라 속 아리아와 중창과 발레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케스트라와 함께한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판소리 시대를 연 고창출신 진채선 명창의 이름을 딴 <진채선 판소리 선암회·판소리그룹 비조채선>이 '채선의 길', '꽃피니 바람불고 달뜨니 구름인다'를 판소리와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 연주한다는데 의미가 더 깊다.

공연관람은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2)

홈페이지와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절찬리 예매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비온드 더 뮤지컬' 출연진 확정으로 4월 2일로 변경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의 3인 3색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온드 더 뮤지컬'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26일에서 오는 4월 2일로 변경됐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전격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출연진의 확정으로 인해 공연일정을 일주일 연기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정 변경 후에도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예매 좌석 그대로 관람 가능하며, 일정 변경으로 인해 관람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수수료 없이 취소 환불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현장예매 커피브라운(465-7730)에서 가능하며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기업 파트너·홍보 부스 모집

5월 2일까지 선착순 접수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열 번째 여정을 함께 할 기업 파트너 및 홍보 부스를 모집한다.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 열 번째 영화 소풍을 준비 중인 '무주산골영화제'가 함께 할 기업 파트너를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2013년부터 엄선된 국내외 영화로 구성된 특색 있는 영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안착, 영화와 여가를 즐기는 2030 관객부터 캠핑을 즐기는 가족 관객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영화 축제로 호평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유 특색을 살린 다채롭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해, 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며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했다. 이로 인해 위드 코로나 반향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통해 폭넓은 소비자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10회 개최를 앞둔 '무주산골영화제'는 의미 있는 울해를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3월 24일부터 모집한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문화 파트너로서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후원 및 한국문화예술회원을 통한 지정 기부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게는 영화제 기간 내 기업 광고 영상 노출 및 공식 홍보물을 통한 광고, CI 노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홍보마케팅팀(muju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후원을 통한 공식 문화 파트너 외에도 영화제 기간 내 기업과 단체의 브랜드, 서비스를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별도로 모집한다. 홍보 부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3월 24일부터 사무국 홍보마케팅팀(mujufilmfest@naver.com)으로 소개서와 홍보 부스 운영안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